회 의 록

|  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팀명(팀번호): | Tonic | | | | |
| 회의일시: | 4월 13일 15:00~17:00, 4월 18일 11:00~13:00 | | | | |
| 참석자: | 황보성우, 이준희, 박정민, 심민찬, 대학생 작곡가(토요일) | | | | |
| 장소: | 5공학관 Y5445 | | | | |
| 멘토링 일시: | | | | (멘토링 실시한 주에만 작성) | |
| 멘토링 참석자: | | (멘터링 실시한 주에만 작성) | | | **멘토명: 홍 성환 선배님**  **담당교수: 김 상균 교수님** |
|  | | |  | | |
| 회의안건 | | | | | |
| 1. 프로토타입의 코드 수정을 어떻게 해야 할 지  2. 음악 Mixing 및 이을 때의 알고리즘에서의 세부적인 부분 작성을 어떻게 할지 | | | | | |
| 회의결과 | | | | | |
| 1. 월요일에는 만들어진 프로토타입을 확인하고, 어떻게 하면 퍼즐 조각들이 더욱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지 코드를 어떻게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관련된 회의를 하였다. 회의를 통해 부분 부분의 수정을 통해 프로토타입을 조금 더 다듬었는데, 주로 다듬어진 부분은 화면의 크기에 따라 서비스가 반응하는 부분과, 퍼즐 조각 두 개가 붙을 때 조금씩 떨어져 있는 느낌을 주는 약간의 부분을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.  2. 토요일에는 음악 Mixing과 퍼즐을 이을 때의 알고리즘 제작을 위해 대학생 작곡가분과 이 부분에 대해 회의하는 시간을 가졌다. 주로 문제점은 “장조”인 곡과 “단조”인 곡들의 조각들이 섞여져 있을 때의 상황과, 모두 장조의 노래이지만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 “다장조”인 곡과 “바장조”인 곡, 그리고 “나장조”인 곡이 있을 때 이를 어떻게 해결할 지, 그리고 패턴을 어떻게 해서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을 지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였었다. 첫 번째로 나왔던 이야기로는 곡들을 두 가지, 혹은 세 가지의 장조로만 섞을 수 있도록 하여서, 전조(곡에서 장조가 바뀌는 부분)을 제외하고는 직전 퍼즐과의 장조가 다르면 맞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하였고, 두 번째로는 한 마디의 끝과 다음 마디의 처음 부분의 음정 차이를 작곡 법칙에 맞춰서 최대한 줄이는 것으로 하였다(최대 5도 차이). | | | | | |
| 조치사항 | | | | | |
| 1. 다음 주 회의 전까지 서버 제작 완료(4월 24일까지)  2. 화성학(백병동 저)를 읽고 자주 사용되는 패턴을 알아 올 것(4월 24일까지)  3. 동요 Sample Data 확보(미디와 악보. 4월 24일까지) | | | | | |
| 비고 | | | | | |
|  | | | | | |